

클린스만호, 엘살바도르 상대 첫 승 도전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토트넘)의 출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클린스만호가 출범 이후 첫 승에 도전한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20일 오후 8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5위의 엘살바도르와 A매치 평가전을 갖는다.

27위인 한국보다 48계단 아래에 있는 팀이다.

지난 3월 부임한 클린스만 감독은 앞서 세 차례 A매치에서 마수없이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다.

1무2패에 그치고 있다. 데뷔전이었던 3월 콜롬비아와 평가전에서 2-2로 비겼고, 이어 열린 우루과이와 경기에서 1-2로 석패했다. 6월 A매치 2연전의 첫 경기였던 지난 16일 페루전에서도 0-1로 졌다.

승패의 의미가 크지 않은 평가전이라고 하지만 새롭게 출전한 클린스만호 입장에선 그래도 첫 승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이 A매치에서 마지막으로 이긴 건 지난해 12월 포르투갈과의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으로 반 년이 넘었다.

미드필더 황인범(울림피아코스)은 "많은 선수들이 지금 승리에 굶주리

스포츠 탈장 수술 손흥민, 내일 출전할 듯
클린스만 감독 부임 뒤 1무2패...오늘 평가전



손흥민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이 19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와 A매치 평가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재성(마인츠)도 "결과적으로(페루전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항상 새로운 감독님 아래에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어려움이 존재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첫 승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분위기 반등을 위해 이번엔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지난달 29일 소속팀 토트넘의 시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영국 현지에서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

았다. 지난 12일 부산 첫 소집부터 훈련을 소화했지만 정상 컨디션을 되찾진 못했다. 코칭스태프는 페루와 경기에서 손흥민을 교체 명단에 올렸지만 끝내 투입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페루전이 끝난 뒤 "너무 아쉽다. 부산에 많은 팬들이 찾아왔다. 4년 만에 왔는데 경기장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나도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엘살바도르전 출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감독님, 코칭스태프와 상의해야 한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일단 긍정적인 기류다. 이후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한 손흥민은 경기 하루 전인 19일 진행되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선수 대표로 참석한다. 페루전을 앞두고선 손흥민 대신 주장 완장을 찬 골키퍼 김승규(야사밥)가 참석했다.

한국은 엘살바도르와 한 차례도 대결한 적이 없다. 엘살바도르가 지난 15일 일본과 평가전에서 0-6으로 완패해 전력을 간접적으로만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뉴시스



신유빈, WTT 하위 대회서 2관왕 한국 여자 탁구 에이스 신유빈(18·대한항공)이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컨테너 라고스 대회에서 단식과 여자복식(전지희·신유빈 조) 경기에서 우승하며 2관왕에 등극했다. /뉴시스

광양시청 육상팀 이아영 '금빛 질주'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400m 금메달...10종경기銅



광양시청 육상팀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남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27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이아영 선수로 주종목인 400m에서 56초 69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아영 선수는 부상으로 1년 정도 재활을 통해 회복한 후 금메달을 차지해 이번 메달 획득은 더욱 값지

며, 그동안 마음고생을 떨쳐 앞으로 전국대회에서도 상위권이 기대되는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이다.

또한, 남자일반부 10종경기에서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는 이호선 선수가 3297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상훈 체육과장은 "좋은 결과로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여준 선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단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전남 수영 꿈나무 광주전국수영선수권 금 4·은 7·동 1

영암초 문강우·김윤성·장성사창초 박현종 2관왕



영암초등학교 수영부.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지역 수영 꿈나무들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4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영암초·장성사창초·여수한려초 수영팀이 제2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암초 문강우는 초등부 배영 50m 예선에서 31초 66으로 1위를

기록한데 이어 결승에서 31초 53초로 터치패드를 가장먼저 찍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배영 100m에서는 은메달을 추가했다

또 영암초 김윤성은 유년부 접영 100m에 출전해 1분 17초 12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배영 50m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도 영암초는 김수민과 이아람이 각각 여초부 배영 100m와 200m, 자유형 100m·50m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영암초는 초등부 혼성혼계영 400m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해 이번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개를 기록했다.

장성사창초는 박현종이 남초부 자유형 400m에서 4분 40초 96으로 금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자유형 200m에서 2분 12초 86으로 은메달을 가져왔다. 여수한려초 최희량은 남초부 평영 100m 결승에서 1분 16초 47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KBO 올스타와 함께 댄다 슈퍼레이스 어린이팬 모집

올스타전 대표 행사 슈퍼레이스가 2023 신한은행 쏘 KBO 올스타전에서도 팬들과 만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번 '신한은행 쏘 슈퍼레이스'에 참가할 어린이 팬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올스타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 이벤트인 슈퍼레이스는 각 구단 별 올스타 선수 2명, 사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 팬과 남·여 보호자, 구단 마스코트가 한 팀을 구성해 참가한다.

낙하산 레이스·점핑 디딤돌·터널 탈출·오펙이 허들·고지 탈환·퍼펙트피쳐 등 6개 구간의 장애물을 통과하는 릴레이 경기 형식으로, 지난 두 차례 대회와 동일하게 토너먼트제로 진행된다.

사연 공모는 19-26일까지 8일간 진행, 어린이 팬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KBO올스타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광주지역 골프 레슨의 골판

골프 트레이닝 전문점

골프PT & 골프필라테스

제형교정 | 비거리 향상
동작분석 | 운동재활
부상방지 | 재활트레이닝
필드레슨 | 스윙체크 및 기본기

영업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 AM ~ 21:00 PM
※ 주말은 예약필수

트레이닝 경력 13년
대학교 겸임교수 출강 경력 탁수
(운동역학·트레이닝법 등)
KPGA·KLPGA 프로 트레이닝
TPI전문가 김용규 트레이너

#광주 선수트레이닝 #광주트레이닝센터 #선수트레이닝 #골프트레이닝

Ch 광주선수트레이닝센터-골핏[GOLF FIT]

010-7773-6661

광주 서구 시청로64 QED골프센터 2층 1호